

(11.22) 한국일보 코리아(KOR-ASIA) 포럼

‘2019 포럼’의 개막을 축하합니다.

한국일보는 2012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전문포럼을 열었고, 작년부터는 시야를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 ‘코리아 포럼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아시아의 역동적인 성장을 이끄는 아세안에 주목합니다. 다음 주 ‘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’ 개최를 앞두고,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열어갈 공동번영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.

포럼을 준비해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리를 빛내주신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님, 림족호이 아세안 사무총장님,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,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.

오늘 나눠주시는 지혜가 함께 잘 사는 아시아를 위한 큰 지침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정부도 아세안과의 관계 확장과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19 11월 22일
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